



3면

'통합' 개혁신당 "위성정당 안떠온다"

# 전주매일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음 1월 4일) 제34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이제 일상으로' ... 열차에 몸 싣고 떠나는 귀경객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전주시 전주역에서 많은 귀경객들이 열차에 몸을 싣고 있다.

## 설 연휴 전복 '살인·강도 없었다'

전북경찰청, 연휴기간 4대 범죄 중 36건 검거  
절도 20 · 폭력 23건 발생... 전년보다 줄어

이번 설 명절 연휴는 대체로 평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43건의 4대범죄가 발생해 이 중 36건을 검거했다. 검거율은 83.7%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과 강도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절도 20건, 폭력 2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6건과 20건의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지난해(202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기간보다 절도·폭력 범죄가 각각 37.5%, 52.1% 감

소한 수치다.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은 47건이었지만 올해는 14.9% 감소한 40건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64명에서 62명으로 3.1%, 사망자는 2명에서 1명으로 50% 감소했다. 인명속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의 선제적 치안 활동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설 연휴기간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 전북자치도특사경, 부동산 중개 부적격자 기획 단속

28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50여곳 대상 지도·점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사항인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 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여부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했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증, 등록증 불법 양도·대여 행위는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또한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열기 '봄업'

지난 한해 84억7000여만원 기부 전략적 홍보효과 '특독' 차지도, 올해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등 기부자 혜택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기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자들의 선호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유용한 답례품을 확대 제공해 기부 모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태어난 지역뿐만 아니라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통해 모여진 기부금은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및 주민 복리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최대 30%까지 제공되는 지역 특화 답례품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을 통해 온라인 접속하거나, 직접 NH농협은행에 방문해 전북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도민들은 거주지가 아닌 도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외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전북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 6만3,000여명이 참여해 약 84억7,000만원 정도의 기부가 이루어져 전략적인 홍보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는 전남도 143억원, 경북도 8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기부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약 64억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답례품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은 기부 금액의 30%인 약 25억원 정도의 소득 창출이 예상된다.

특히, 답례품 제공자는 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과 생산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 참여하는 전북 지역 외 거주자인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전북 사랑도민증'을 발급해 기부자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봄·가을 축제 기간, 그리고 연말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부 유인을 높이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하

반기에는 대면홍보와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 전략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제공 중인 답례품 외에도 전국적인 트렌드를 고려해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을 중심으로 한 확대 발굴이 예정돼 있으며, 답례품 품질과 배송관리를 강화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모여진 기부금은 기부자와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북 주민복지에 기여할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식은 빠른 시일 내에 기부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재정력 약화,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대응책으로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은 전북의 관계 인구조차 지역과의 유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차지행정국장은 "지난 한해 동안 출항 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전북 발전을 기대하며 도내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더욱 발전하고 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고향사랑이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설을 맞아 16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박차

전북자치도교육청, 한국치즈과학고 등과 추진협의회 개최  
바이오특화단지 연계 기업 등 발굴 내달까지 컨소시엄 꾸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 1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꼽은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출범한 지난달 18일에도 첫 업무로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계획에 서명하는 등 특성화고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부는 다음 달 협약형 특성화고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전북하이테크고등학교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협약형 특성화고에 도전하는 학교들과 차례로 협의회를 가졌다. <관련사진 4면> 이 자리에서 전북하이테크고는 지능형 공장 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과의 협약에 지자체와 전북교육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새만금이 차진지 특화단지인 완주신단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관심을 쏟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연계 기업 등을 발굴해 3월까지 컨소시엄 꾸러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응모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는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해야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또한, 한국치즈과학고는 치즈 분야와 식품품질 관리, 미생물, 바이오 분야의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을 이리공업고는 에너지/이차전지 분야 특화 방향, 지역 에너지 관련 입주 기업과의 연계, 학교노후화 시설개선 및 여건개선을 통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이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새만금이 차진지 특화단지인 완주신단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관심을 쏟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연계 기업 등을 발굴해 3월까지 컨소시엄 꾸러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응모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는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해야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 만원까지

**기부 방법 (2023.1.~)**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기부 지역특산물 구입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공급

kakao 채널 완주고향사랑  
완주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063-290-2391 ~ 2392